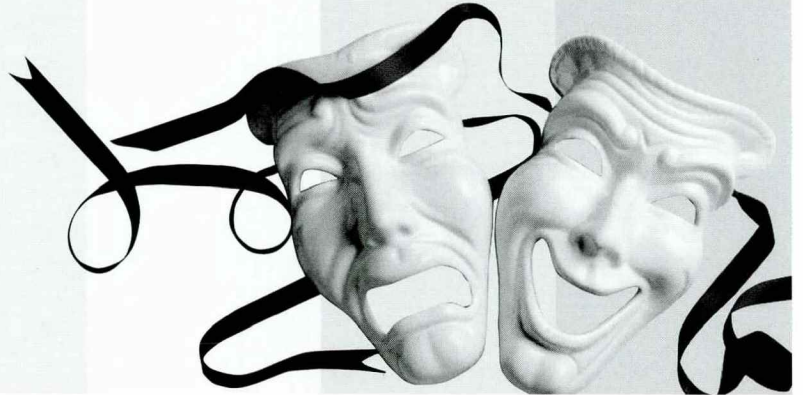


한·미 FTA 등 농업협상동향

Free Trade Agreement



01 한미 FTA 농업분과 제5차 협상 결과

1. 제5차 협상개요

- 일시·장소 : 2006. 12. 4(월)~8(금), 미국 몬타나
 - 농업 분과 협상은 12. 4(월)~7(목) 4일간 개최
- 협상 대표단
 - 외교통상부 김종훈 대사(수석대표) 등 각 부처 대표 180여 명
 - 농업 분과 협상을 총괄하고, 원산지·서비스·무역구제 등 관련 분과의 협상에도 참석
 - 국제농업국장, FTA2과장, 식량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등 18명 참석
- 협상 대표단
 - 외교통상부 김종훈 대사(수석대표) 등 각 부처 대표 180여 명
 - 농업 분과 협상을 총괄하고, 원산지·서비스·무역구제 등 관련 분과의 협상에도 참석
 - 국제농업국장, FTA2과장, 식량정책과장, 축

산정책과장 등 18명 참석

- 이번 5차 협상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 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
 - 우리측 관심사항에 대해 미측이 현 시점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협상을 중간에 중단
- 농업 분야는 축산물, 과일류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우리측의 민감도를 전달하고 미측의 관심 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력
 - 구체적 품목별 양허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제6차 협상은 2007년 1월 15일 주간에 한국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

2. 주요 논의내용

[농산물 양허안 논의]

- 그동안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을 중심으로 진행

- 우리측은 그동안 품목별단체와 협의를 통해 파악한 미정(undefined) 품목의 민감도를 설명하고, 미측이 민감품목 처리방향에 대해 신중적 입장을 보여야 협상 진전이 가능함을 강조
- 미측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우리측이 미정 품목에 대한 입장을 좀 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
-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나, 품목별 양허방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음
- 우리측은 민감품목 중 미국이 특히 관심이 있는 품목에 대해 요구수준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력
- 양측은 상호 기대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재차 확인
-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입장차이가 큰 부분에 대해 상호 관심사항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농업 분과 협정문 논의]

- 협정문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품목별 양허방향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논의
- 수입쿼터(TRQ) 관리에 대해 우리측은 선착순 방식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수입쿼터 관리방식의 세부 사항은 개별 품목별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
- 농산물 셰이프가드에 대해 미측은 민감성을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제도의 유용성을 지지하면서도, 대상 품목이 확정된 후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것을 제안

[농업 이외의 분과]

- 원산지 분과에서는 미측이 설탕, 주류, 담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

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 우리도 축산물의 경우 제3국산 동물을 도축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함을 강조
- 서비스 분과에서 미측은 농업 관련 유보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유보안의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일부 유보안의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진행
- 양곡도정, 인증업무(친환경 농산물, 전통식품 등), 농림부수서비스와 관련한 국내 현황 등에 대해 질의

3. 평가 및 전망

[농산물 양허안 논의]

- 이번 협상에서는 미정 품목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향후 민감품목 양허방향 구체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한 것으로 평가
- 미측에게는 우리의 품목간 우선순위 및 보호 필요성 주장의 구체적 근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관측됨
- 미측은 주요 민감품목의 처리방향 등 입장차이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관심사항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
- 미측은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양국의 고위급간 논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향후 계획

- 전반적인 한미 FTA 협상의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협상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
- 제6차 협상에 대비하여 품목별 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을 보다 구체화
- 구체적인 양허방향 마련과 더불어 협정문 관련 대응 입장 정립

-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 및 발동 기준 구체화
- 수입쿼타(TRQ) 관리와 관련된 잔여 쟁점 처리 방향은 수입쿼타 대상품목 결정과 연계하여 검토

02 한·미 FTA 위생·검역(SPS)분과 협상 방향

1. 협상개요 및 진행결과

- 한·미 FTA SPS분과를 별도 설치하고, 농림부에서 분과장을 맡아 그동안 1-4차 협의를 진행
 - 1-3차 협상은 검역제도 소개 등 상호 이해제고에 중점
 - 4차 제주 협상부터 협정문 논의를 본격 시작한 상황이며, 5차 협상은 12.19-2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 예정
- SPS의 특성상 식약청, 외교부, 해수부 등 다수부처 및 검역 전문가들로 협상팀을 구성하여 대응
 - 미측은 USTR(무역대표부)에서 분과장, 농무·국무성, 보건·환경청 등 유관부처에서 협상에 참여(10명 내외)
- 양국간 검역현안과 FTA협상을 분리하여 지난 10.30~11.3일간 분야별 기술협의를 열었으나 특별한 결론을 맺지 못하였으며, 한·미 양측이 추가협의 일정을 조율중

2. 쟁점 및 평가

- 협정문안 협상에서는 FTA 발효 후의 양국간 SPS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채널의 구성방식이 핵심 쟁점
 - 우리측은 WTO 문의처 등 기존 채널과 양자 접촉창구(contact point)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측은 SPS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 다만, 우리측은 위원회도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춘다면 우리 검역역량 확충의 계기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

- 미측은 SPS 현안을 FTA 협상에서 분리하여 논의하는데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협상 마지막으로 갈수록 연계를 고집할 가능성 농후
- SPS 현안의 진전 없이는 한·미 FTA를 마무리하지 못하며, FTA협정문과 현안 진전사항을 패키지로 美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
 - ※ 분야별 기술협약에서 주요 관심사항은 도출된 상황 : AI 비발생 지역화 인정, 애완용 사료제품 규제완화, 사과·배 등 식물검역 진전,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허용 절차 등
- SPS 분과 협상속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칫 협상의 deal breaker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대응할 필요

3. 제5차 협상 대응방향

- 제5차 협상은 '06.12.19~20(2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되며, 농림부 통상협력과장(분과장) 등 관계부처* 전문가 9명이 참석할 계획
 - ※ 외교통상부(2명), 해양수산부(1명), 식품의약품안전청(1명) 관계관
- 미측이 기술협약에서 진전이 없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FTA 협상틀 안에서 현안논의를 요구할 경우 강한 반대 입장 견지
 - 다만, 추가 기술협약의 요구에는 성실히 대응
 - 특히, 쇠고기 뼈조각 문제 등 SPS현안은 협상 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
- SPS 협의채널에 대한 우려의 견해가 많으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가 이에 대한 과학적·논리적 검역역량을 갖추 수 있을지가 관건
 - 실제, SPS 협정문에 여하한 형태의 협의채널을 두더라도 FTA발효후 합동위원회에서 SPS 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수 있음
 - 따라서, 위원회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제거하고 설치시기를 유예하는 등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수용을 검토
 - ※ 미국-호주 FTA에서는 상대국 SPS제도에

대한 간섭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국내 SPS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교류 및 교육훈련 등 검역협력 강화 조항을 추가

03 기타 FTA 협상동향

1. 한·아세안 FTA

가. 협상경위

- 2005년 2월 1차협상 이후 15차례 협상 진행
 - 11차 협상(06.4)시 상품협상 타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06.8)시 서명
 - 현행관세유지 71개 품목(HS 10단위), 향후 10년간 현행관세유지 226개 품목 등 297개 초민감 품목을 설정,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
- 상품협정은 국회 비준동의 후 2007년 협정 발효 전망

구분	내용	품목수 (HS 10 단위)	주요 농산물
초민감품목	A 2016년까지 50%p이하로 감축	5	치즈, 사과, 배, 오렌지 (실질적 현행관세유지)
	B 2015년까지 양허제외 2016년 1/5 감축	190	쇠고기(기타), 돼지고기(기타), 닭고기, 오리고기, 낙농품, 달걀, 녹용, 국화, 카네이션, 장미, 양란, 감자, 단옥수수, 녹두, 팥, 고구마, 호도, 밤, 잣, 대추야자, 구아버, 망고, 망고스틴, 포도, 복숭아, 두리안, 단감, 대추, 생강, 메밀, 전분, 땅콩, 참깨, 인삼, 참기름, 들기름, 소시지, 분유, 설탕, 혼합조미료, 기타 가공식품
	C 2015년까지 양허제외 2016년 1/2 감축	36	맥주보리, 겉보리, 쌀보리, 옥수수, 맥아, 가공곡물, 오렌지 주스
	D TRQ제공 현행관세유지	8	강낭콩, 메니옥, 메니옥전분
	E 현행관세유지	58	쌀, 고추, 마늘, 양파, 녹차, 쇠고기,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파인애플, 바나나, 감귤, 유장기타 조제 식료품 등
민감품목	2012년 20%로 감축 2016년 5%로 감축	151	버섯, 당근, 호박, 고구마, 레몬, 매실, 꿀분, 이스파리기스, 캐슈넛, 과당, 맥이당, 만니톨, 기타 화훼류, 과당, 국수, 당면 등

나. 농산물 관세인하계획 타결 내용

- 양허유형별 주요 농산물

다. 향후 계획 및 전망

- '07.1월 제16차 협상 및 원산지 이행위원회 개최 예정(미안파)
 - HS 세번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및 서비스·투자 분야 논의
- 서비스·투자 및 최종협상은 내년 하반기 타결 전망

2. 한·EU FTA

가. 추진경위

- 한-EU 통상장관회담(06.5.15)에서 예비협의를 개최 결정
 - '06.7월과 9월 브뤼셀에서 2차례 예비협의를 완료
- '06.9.27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 일정을 고려, 내년초 한·EU FTA 출범선언을 목표로 필요한 사전작업 진행"을 결정
- 한·EU FTA추진 관련 1차 공청회(11월24일) 개최
 - ※ 농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농업통상정책협의회(11.10), 품목단체 농업통상자문위원회(11.16) 개최

나. 주요 논의동향

- 2차례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의 FTA 기대수준 및 관심분야에 대하여 논의, 농산물 민감성에 대한 EU측 기본 입장을 확인
 - EU측은 농산물자유화에 있어 한·칠레 FTA 수준(71%)을 기대하는 것으로 관측
 - ※ EU·멕시코 FTA와 EU·칠레 FTA의 농산물의 자유화 수준은 각 45%~70%
 - DDA 협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 농수산업의 민감성도 잘 알고 있음을 언급
- 한·EU FTA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피해액은

2,000~6,600억원으로 잠정예측(KIEP)

다. 향후 전망 및 대응

- EU는 '06.10월 신통상정책에서 한국을 유력 FTA대상국으로 적시
 - '07년 2~3월 중 FTA 협상지침 승인 후 한국과 FTA 협상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
- 우리측은 EU측 동향을 주시하며 국내절차 진행
 - 모든 협의채널을 열어놓고 지속적인 농업계의 견수렴을 통해 협상대응
 - ※ 한·EU FTA 농업분야 협상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12월)

3. 한·캐나다 FTA

- '05년 7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06년 11월까지 8차례 협상진행 농산물 관세철폐 수준에 대한 양측 기대가 달라 난항 예상
 - 제8차 협상(11.20~23일, 서울)에서 농업소분과를 설치, 캐측 관심품목(축산물 및 곡물) 및 실행관세 10% 이하 품목을 중심으로 양허안 논의
- 제9차 협상은 내년 1.29~2.2일 캐나다에서 개최 예정
 - 캐측은 한-미 FTA 협상에서의 미측 입장과 유사하게 협상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
 - 양허안 및 동식물 검역 등 농업 쟁점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

4. 한·인도 CEPA

- 인도는 '07년말 타결을 목표로 '06.3월 이후 4차례 협상 개최
 - 1차 협상에서는 협상시한, 분과 구성 등 협상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논의
 - 2차~4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안 및 상품 자유화 방식 논의
- 제5차 협상은 '07.1월 인도에서 개최 예정

- 상품분야 1차 양허안 교환예정
- 양국 모두 농업을 민감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인도가 쌀 수출국인 점을 감안하여 농업분야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
- ※ 일본·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양허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로 교착상태

04 DDA 농업협상 동향 및 향후계획

1. 협상 동향

- 올해 7월말 이후 중단되었던 DDA 농업협상이 최근 정상화되어 협상이 재개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향후 정치적 타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차원의 논의 위주로 진행될 전망
- 관세와 보조금 감축수치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위한 본격 협상의 시기는 '07년 1월 다보스 포럼(Davos Forum) 이후에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주요국간 입장차를 고려할 때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타결될 지 여부는 불확실 하나, 주요국간 입장이 조율되면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음

2. 향후 계획

- 협상이 급진전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룹간, 주요국간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미국 농업법 제정 동향 등 협상 진전의 주요변수에 대해서 면밀히 동향 파악
- DDA 협상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임

